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보다 ○사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활의 신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한 때 저는 줄곧 우리의 부활 신앙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부인할 수 없는 근거와 논리들.

그런데 이슬람의 신앙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은 반쪽짜리 사실이라는 것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 성경은 그냥 우리들, 기독교인들의 책일 뿐입니다. 타종교인이든 무교인이든 누구에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도 유대 공동체 밖에서는 이야기 거리도 되지 않았던 그래서 다른 기록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도 없었던 ○수라는 사람의 이야기 임을.

생각해보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제일 처음의 무리들(제자들)은 부활사건에 대해 기록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으로 인해, 두려움 때문에 못박히던 주님을 떠나 도망쳤던 그들이 목숨을 내어 놓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되었고 또한 (신약 성경이 없던 그시대) 그들의 주변 사람들도 신앙의 공동체로 들어와 그들 또한 성령으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합니다.

예, 물론 말씀은 그런 그들의 신앙을, 또한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고 굳건히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같이, 바울과 같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함 없이 우리의 신앙 여정은 완성될 수도, (아니 어떤 의미에선) 시작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수로 살아갈 이유가, 능력이 생깁니다. 그 체험이 크면 클수록, 깊으면 깊을 수록, 풍성하면 풍성할 수록, ○수는 우리의 모든 영역을 채워 가실 겁니다. 요 몇 일 이 묵상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수로 드러나지 않는 영역, 변화하지 않는 영역, 열매 없는 영역, 이런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인지...

더 철저히 부활의 ○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붙들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힘쓰길 바라며... 그러나 나의 그 바램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큰 열심으로 나를 향해 달려 오시는 아버지의 벌린 두팔을 바라보며...

그 은혜가 나에게 넘쳐나고 기도하는 주변 친구들에게 넘쳐나고 이곳에 넘쳐나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넘쳐 나길 바랍니다.

T 국에선...

** 지난달 초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28%라는 저조한 투표 참여에 90% 이상되는 득표로 현 대통령이 재선 되었습니다. 이 숫자들이 보여 주듯이 지금 이곳의 정치 현황은 그리 안전하지도, 건강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어렵게 얻어낸 아랍의 봄, 민주화의 열풍이 그 시작된 장소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 이 나라에도 작은 수지만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 크지 않은 모임들 안에도 나눔과 분열이 있습니다. 이곳의 회가 이땅에서 아름답고 도전이 되는 증인들의 공동체로 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일터에서는...

** 신실하고 책임감 있는 동역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성장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만지심을 경험하며 말뿐이 아닌 함께하는 모두의 삶 속에 Kingdom Business 로 나가기 위한 더욱 그 은혜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 함께 일하며 신뢰의 관계를 쌓은 자매들을 각각 부엌과 홀의 매니저로 세웠습니다. 그들과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며 꿈을 함께 꾸고 있습니다. 그 꿈위에 주님의 기름부으심을 간구합니다.

** 그 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restore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계십니다. 가급적 직원들 스스로 식당을 운영해 나가고 저희는 또 다른 영역에서 필요한 사역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 A 형제는 아직 가족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 깊이 있는 나눔을 갖지 못한 것에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 한동안 예배에 참석하던 O 는 혼자서 진리를 찾아 주님을 믿게되는 자리까지 온 형제입니다. 회심 후 가족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기도 했던, 그래서 가족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형제인데 지금 교제가 끊긴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어디를 가든 건강하게 균형잡힌 믿음의 청년으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 지난 주에 미국에서 S 자매가 방문하여 교제하였습니다. 현재 남가주 사랑의 회사에서 섬기고 있는 사역자인데 내년 초에 이곳에 와서 6 개월간 단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선전에 헌신된 자매인데 장기 사역자로 헌신하기 전에 먼저 6 개월 단기로써 경험을 할 것입니다. 준비하는 과정과 와서 보내는 시간들 위에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 H 와는 몇번 나눔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부반응 없이 받아들였지만 오히려 그러한 나눔 후 본인의 이슬과 신앙에 대한 깊은 체험과 헌신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그런 그녀의 삶 주변에는 저희 뿐 아니라 몇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며 계속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녀를 향하신 아버지의 열심 일겁니다. 그 관계들 안에서 그녀가 주님의 사랑과 임재를, 만지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 내년에 안식년을 계획합니다. 형편상 사역지를 떠나진 않겠지만 최대한 이곳에서의 일과 사역에서 거리를 두고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 보고 나아갈 시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09 년에 안식년을 하고 15 년 만에 계획하는 안식년이니 만큼 이 시간들을 통해 회복과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024 년 11 월에 윤요셉, 마리아 올림